

한반도 평화 결의안

의안 번호	13527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김영배 · 조정식 · 윤후덕
최혁진 · 홍기원 · 이기현
문진석 · 박홍배 · 박상혁
김현정 · 조인철 · 박용갑
윤종근 · 김남근 · 김준혁
허영 · 이훈기 · 안태준
이용우 · 전진숙 · 백승아
오세희 · 이용선 · 백혜련
박정현 · 박찬대 · 채현일
남인순 · 황정아 · 민홍철
김한규 · 손명수 · 김태선
최민희 · 박홍근 · 서미화
김동아 · 김윤 · 김상욱
오기형 · 진성준 · 박지원
이해식 · 윤건영 · 강선우
문금주 · 이주희 · 김원이
전현희 · 김용만 · 서영교
한정애 · 김준형 · 박선원
이강일 · 김태년 · 민병덕
이재강 · 이재정 · 김승원
소병훈 · 이광희 · 민형배
정일영 · 장종태 · 송재봉
김병기 · 고민정 · 박정
의원(69인)

주 문

현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은 멈추었지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남북 당국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합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심화로 인해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가 다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전 정부 3년 동안 무인기 침투 등 ‘북풍’을 조장하는 도발적 행위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정전협정 이후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자 국제적 과제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전쟁 불용’이라는 국민적 뜻과 국제사회의 평화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남북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견지하며, 북미대화 재개를 지지하고 남북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인도적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과거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대화와 교류 재개가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으로 ‘평화가 국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

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는 법적·제도적 종전선언 없이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70년 넘게 지속되어 옴.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남북 대화 단절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고, 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더하여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전쟁 종식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현 정부 또한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대화 복원, 인도적 교류 확대, 평화경제 실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국 정상이 한국에 모이는 역사적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내외적으로 국회의 의지를 천명할 적기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함.